

# 광양시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 관광버스 운행

올 수소 관광버스 8대 추가 보급  
8월부터 수소 시내버스 2대 도입

광양시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알려진 수소 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첫 수소 버스로 '관광버스'가 출고됐다. 올해 관광버스 8대를 추가 보급하고 오는 8월부터 수소 시내버스 2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 승용차에 집중했던 광양시 수소차 보급 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수소 버스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국비 58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억원 등 71억원을 확보해 수소 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1대당 수소 고상 버스 3억7000만원, 수소 저상버스 3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구입 보조금을 제외하고 민간이 부

담하게 될 비용은 수소 고상 버스 2억원, 수소 저상버스 1억3000만원으로 일반 버스 구입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소 버스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버스에 비해 차량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으며, 배기가스나 탄소 배출이 없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릴 만큼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다.

수소 버스 1대가 중형 경유차 40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소 버스는 전기버스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충전 시간은 전기버스가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에 반해 수소 버스는 10~20분으로 짧고, 한번 충전으로 운행이 가능한 거리도 전기차는 400km 미만, 수소차는 500km 이상으로 길다.

신호희 광양시 신산업과장은 "수소 버스 출고를 시작으로 수소차 보급사업을



광양시 첫 수소 관광버스

광양시 제공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시가 지원하는 수소 승용차 구입 보조금 혜택과 함께 수소차 구입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수소 버스 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소 승용차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고흥군, 상반기 물가안정 캠페인 불공정거래 근절·착한 소비 장려

고흥군은 지난달 27일 고흥동초등학교 일원에서 2024년 상반기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고흥군청, 고흥읍, 고흥경찰서, 물가 조사요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최근 과일 등 농산물 가격 급등 우려를 해소하고 다가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상인에게는 △상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바가지요금 및 끼워팔기 중단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 상품과 전통시장 이용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 착한 소비활동을 장려했다.

한편,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바일·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 캐시백 적립 방식 도입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추가 캐시백 적립 이벤트 등을 검토 중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 여수죽림1지구 토지공급 설명회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지난 29일 여수한려새마을금고에서 '상반기 여수죽림1지구 토지공급 및 건축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인중개사 및 실수요자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공급공고한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32필지 △준주거시설용지 17필지 △상업용지 4필지, △종교용지 1필지, △주유소용지 1필지 등 총 55필지에 대한 전반적인 토지공급에 대해 설명했다.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1 일원에 9만8000㎡, 계획인구 1만4000명 규모로 조성되며 여수시청 5분, 여천역(KTX) 12분, 여수산업단지까지 15분내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 공급 완료된 공동주택 4개 단지 3500세대와 인근 죽림 2지구 공동주택 및 주거단지와 연계되면 정주민구 3만명 이상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수요자에 처음 공급되는 단독주택(점포겸용)·준주거시설·상업용지의 입찰은 오는 15~18일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도록 고객만족 ESG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연분홍 벚꽃 '활짝' 광양제철소 주택단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금호동 주택단지와 백운대 일대에 연분홍 벚꽃이 활짝 폈다.

제철소 주택단지 식재된 4300그루 벚나무가 만개해 상춘객을 반기고 있다.

친환경 그린 제철소를 목표로 건설 초기부터 녹지공간을 미리 확보해 다양한 수종을 심어온 광양제철소는 지금까지 810만㎡(245만 6300평)에 걸쳐 5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왔다.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와 백운대벚꽃길 일대에 심어진 4300그루의 벚나무들은 봄철이면 연분홍빛 자태를 뽐내며 벚꽃 명소로 떠올랐다.

지난달 19일과 20일에는 사랑 실은 뽕튀기 재능봉사단과 손으로 그리는 희망캘리그래피 재능봉사단이 벚꽃길에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도 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벚꽃과 함께 사진촬영하는 광양제철소 직원들.

광양제철소 제공

## 상반기 장학생 모집 보성군장학재단

보성군은 (재)보성군장학재단이 4월1~15일 올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본인·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이다.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 80명, 미래인재 66명, 희망나래 16명, 보금자리 57명, 한울타리 39명 등 10개 분야 341명에 3억35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은 6월 중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양기람 기자

## 순천시, 국가정원 개장 손님맞이 가로화단 등 정비

### 순천철쭉 30만주 식재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순천시는 4월1일 국가정원 개장 손님맞이를 위해 정원도시에 걸맞게 주요 관문과 도로변 가로화단, 교통섬 등 관내 도시숲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내로 진입하는 순천IC 일원 법면 1만7000㎡에 전국 생산량 1위의 순천철쭉 30만주를 식재한 후 꾸준히



관리해 올해 화려한 색과 꽃향기로 관문 경관을 물들일 예정이다.

또 도심 곳곳에 사각(우석로), 둥근형(충효로)의 수형과 피라칸다 토피어리

(강변로 사랑의 거리) 연출 등 특색있는 가로화단 조성으로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숲의 열섬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역할이 중요한 만큼 효과 증대를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성있고 차별화된 수형과 수종의 도시숲 조성을 고민하여 정원도시 순천의 위상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순천=배서준 기자

## "반려동물 데리고 순천 드라마촬영장으로 오세요"

### 20kg 미만 중 소형견도 입장

순천시 드라마촬영장이 반려동물에게도 개방된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 여부가 여행지 결정의 중요 요소로 떠올랐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문체부에서 주관한 '2024 반려동물 친화관광도

시'에 선정돼 4월1일부터 드라마촬영장을 반려동물에게 개방한다.

순천드라마촬영장은 60년대 달동네, 80년대 시가지 등을 재현한 대표 관광지로 교복 복식체험 및 굴렁쇠, 율놀이 등 추억의 오락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 '악귀', '파친코' 등 영화·드라마를 촬영한 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인증샷을 찍는 색다른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비반려인과 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관광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드라마촬영장에 입장가능한 반려견은 20kg 미만의 중 소형견으로 목줄과 기저귀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순천시 관광과(061-749-454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QR code and text: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